

인구 47.2% → 49.3%, 취업자수 47.1% → 50.3%, 연구개발투자비 61% → 64.3%

## 지난 10년 수도권만 더 커졌다

새 정부 지방교부세를 인상 등 지방 살리기 나서야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수도권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는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관련 예산과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광주·전남 등 지방은 더욱 살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전남발전연구원 등이 최근 취업자수와 인구, 노령화 지수, 연구개발 투자비, 특허등록수 등을 토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을 공언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학교 이전과 수도권 공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19%대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연구개발투자 예산의 의무 비율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비해 지난 2011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비율은 47.15에서 49.3%로 심화됐다. 또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집중비율도 47.1%에서 50.3%로 수도권에 몰렸고, 연구개발투자비 집중비율은 61%에서 64.3%로 늘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인재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고 비수도권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집중도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치는 사람과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투자비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연구원은 특히 현 정부가 국민대통령 제62기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김용희·이슬하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정책을 다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100일이다 되도록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인선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컨트론타워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각 정부 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애들아 함께 아침밥 먹자”

30일 오전 광주시 남구 수피아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여고생들이 주먹밥과 음료수를 받아주고 환한 표정으로 등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와 광주YWCA회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학업 등에 쫓겨 아침밥을 먹지 못한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임금피크제 합의

‘고용률 70% 달성 협약’...공공기관 3% 청년 채용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청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협약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협약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직무전설링 등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정년 60세 연장특례를 위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협력해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되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 재설계, 인력배치 전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표한 일자리 협약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논의되거나 추진됐다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라며 “노사정 협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은 각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비정규·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문 목사는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남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에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계 지원을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DJ·문학한 목사  
긴급조치 위반 혐의  
36년만에 누명 벗는다

생전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故) 문학한 목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36년 만에 누명을 벗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문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심 대상에는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이 포함됐다. 또 신민당 부총재를 지낸 고정일 전 의원과 국내 첫 여성 변호사로 알려진 부인 이태영 여사 등의 재심도 개시됐다.

문 목사의 3남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덕수의 이석대·김형태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았다.

재판부는 이를 청구에 대해 지난 4월 18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조, “긴급조치 9호에 위반·무효로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목사는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남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연합뉴스

제62기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김용희·이슬하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월호  
5월 25일 발매

메이드인 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획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키버스토리

## 메이드인 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듭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스페셜 인터뷰  
영화감독으로 '인생 3막' 올린 영화인 김동호의 꿈과 삶

마주앉은 책과 삶  
건축가 승효상  
비움으로 가득 채운 사유의 건축

이달의 작가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세계미술관 기행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화역사기행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홀날린 백제의 생명들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당신의 아토피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혹”